

협회소식

본회, 임시총회에서 전동용 회장 재신임 결의



본회는 지난 11월 29일 양돈회관 5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에 물의를 빚었던 양돈협회 사태를 논의 하고 전동용 회장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재신임 결의했다.

이는 회장단 및 임원진으로 하여금 안으로는 협회내 흩어진 전열을 정비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치 않도록 하고, 밖으로는 산적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에 힘을 주는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날 임시총회는 당초 「임원·지부장 연석회의」로 소집되었으나 대부분 참석자들의 제안으로 임시총회로 변경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제1검정소 소장인 정숙근 박사로부터 비육돈의 능력에 따른 생산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영환 전무이사로부터 최근 양돈업계의 동향과 협회의 주요 활동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전동용 회장 주재로 진행된 협의사항은 ▲대두3사의 수입대두의 관세율 인상건의에 대한 대응책 ▲UR 농

산물협상 타결 이후의 양돈산업 대응방안 ▲돼지가격 안정대 설정에 대한 대책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현안 및 대책 ▲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려는 데 대한 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협의회에 본회의 가입 등이었다. 농업의 존폐위기에 서서 타 유관단체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 농민단체 협의회에 가입키로 결정하고, 나머지 사안들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것과 함께 양돈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그간 협회사태에 대해서도 홍보비 2,600만원 사용 및 회관주식등 회장의 모든 업무추진을 지지하고 재신임 하였다.

본회 돈육수입개방 대응책 마련

본회는 돼지고기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본회가 마련한 대응방안의 골자는 ▲양돈산업 구조개편 ▲양돈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유통구조개선 ▲축산공해문제 해결 ▲돼지고기수출 촉진 ▲축산물 소비홍보 등 양돈산업 전반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본회는 양돈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국제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사육규모로 돼지사육패턴을 전환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자동화와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양돈화로 서둘러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돈선진 기술을 도입,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

본적으로 호당 돼지사육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해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 부망을 통해 비육돈 생산원가를 조사중에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돼지유통 구조가 비합리적이어서 ▲도축장 권역화 및 시설근대화 ▲부분육유통센터 설치 ▲도축장 신개축을 위한 자금지원 ▲도축장 신개축을 위한 자금지원 ▲도축장 도축기술의 선진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본회는 앞으로 시행될 돼지고기 도체등급제도로 국내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도의 실시로 농가들에게 양질돈육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양질돈육을 원하는 부위별로 소비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들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전법에서 축산폐수 문제는 단속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서 전기업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정화조 등 정화시설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영세양돈 농가들에게는 공동정화처리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질돈육생산을 위해 종돈 및 사육기술과 수출규격돈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돼지출하 체중을 현재의 90kg에서 110kg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 배합사료에도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료비절감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시키고 양질의 양돈사료배합공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 마사회 체육부 이관계획 철회 요청 탄원서 제출

본회는 지난 11월 8일 한국농육우협회와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한국축산학회 등 축산관련학회 등 15개 단체·학회와 공동으로 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려는 정부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

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총무처, 농림수산부, 체육부, 감사원, 안기부, 각 당에 제출했다.

본회는 탄원서에서 「현재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한국마사회 설립취지나 한국마사회법정신, 나아가 우리나라 축산현실과 축산농민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할 구상을 백지화 해 줄 것」을 탄원했다.

탄원서는 이어 「설령 경마가 체육이라 한들 농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한국마사회의 체육부 이관은 모든 축산인과 농민의 정부 불신을 야기시켜 국민위화감을 조장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본회, 대두박 관세율 인상계획 철회 건의

— 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각계에 건의서 제출

본회는 지난 11월 20일 대한양계협회(회장 : 신흥중)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 이운우)와 공동으로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대두박 관세율 인상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국내 대두3사(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유지)의 대두박 관세율 인상건의를 받아들여 현행 3%의 관세율을 25~35%선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는 대두3사의 주장대로 국내 콩재배 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축농가의 부담을 전제로 대두3사의 영리집착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전근대적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그동안 대두3사는 대두박 가격을 국제시세보다 kg당 90원이상 비싸게 판매하여 연간 540억원 어치(60만톤)의 부당차익을 양축가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고, 「현행 3%인 대두박의 관세율을 수입자

유화가 이루어지는 내년부터 무관세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서는 「국내 콩재배농가를 보호할 목적이라면 대두(콩)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식용유 값을 인상하면 되지, 대두박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농민을 담보로 특정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회는 이 건의서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감사원, 국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내 대두3사는 내년부터 수입자유화가 이뤄지는 사료원료인 대두박의 가격을 현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세당국에 관세율을 3%에서 30% 선으로 인상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미국산 대두박의 경우 관세율을 20%로, 기타 지역(중국산)은 35%로 인상토록 재무부 관세국에 요청했다.

'89년도의 대두박 사용량은 국산이 663,352M/T, 수입이 457,413M/T 등 총 1,120,765M/T이었다.

본회, 축산원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진정서 제출

-8개 축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정부, 국회, 각 당에 제출

본회는 지난 10월 30일 축협중앙회 등 8개, 축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 각 당에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본회와 축산관련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현재 농촌의 소득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영농비와 가계비 지출은 증가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설상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은 가중돼 축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실의에 빠져있는 양축농가를 위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는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최근 정부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양축농가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하며 현행대로 부가세를 과세하고 징수된 부가세를 농어촌발전기금 등에 편입해 축산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대해,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생산비가 4.5% 인하돼 참담한 양축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뿐 아니라, 수입 배합사료 원료와 축산기자재에 부과되는 관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또 「징수된 부가세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축농가의 부담을 타농업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양축농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따라서 100만 양축농가는 실질적인 생산비 인하를 가져오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절실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배합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진정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단체와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진정서 제출 단체 : 축협중앙회(회장 : 명의식), 대한양돈협회(회장 : 전동용), 대한양계협회(회장 : 신흥중),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 이윤우), 한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회장 : 이경해),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 권오걸), 한국사료협회(회장 : 김주호),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 윤병성),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 김용태)

▲진정서 제출처 : 대통령,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국회의장, 국회 재무위원장,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민자당 대표위원, 평민당 총재, 민주당 총재.

본회, 육가공협회에 돼지고기 수입중지 협조 요청

본회는 지난 11월 26일 한국육가공협회에 「돼지고기 수입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귀협회 회원들이 본회에 제출한 수입포기 각서대로 돼지고기 수입이 중지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협의회, 전북양돈인 체육대회 개최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북양돈인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본회 전북도협의회(협의회장 : 김영범)가 주최하고 전북양돈조합이 후원한 이날 체육대회에는 본회 최상백부회장과 장익상상무, 설동식 전북양돈조합장, 전북도내 회원 등 양돈인 45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회에서 본회 전북도내 각 지부 회원은 지부별로 줄다리기, 배구 등의 경기와 노래자랑도 가져 흥겨운 하루를 즐겼다. 군산·옥구지부가 배구와 줄다리기에서 우승,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이리익산지부가 배구와 줄다리기에서 준우승,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북도협의회는 이번 체육대회에 많은 지부에서 열의를 갖고 참석, 화합과 친목 도모에 기여했다고 판단, 체육대회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본회, 환경보전 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에 가입

본회는 지난 11월 24일 새로 설립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회장 : 정수창)에 가입키로 하고 가입동의서를 제출했다.

동 협의회는 환경보전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

협회, 축산업협동조합 등 15개 단체와 환경보전운동과 관련이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직능단체로 구성될 방침이다.

동 협의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교류, 환경보전범국민운동 계획 수립, 시행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거창지부 현판식 거행



거창지부(지부장 : 김병수)는 지난 11월 7일 거창축협 회의실에서 본회 최상백부회장과 신태식 경남도협의회장, 조옥봉 경북도협의회장, 경남관내 지부장과 거창군내 관련기관 단체인사,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거행했다.

김병수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돈농가들의 권익보호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판식에는 중앙회에서 정희완지도부장이 참석하여 협회의 역할과 기능 및 돼지가격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인천지부 양돈세미나 개최

인천지부(지부장 : 김원호)는 지난 11월 21일 인천 예식장에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의 전망과 양돈장

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해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양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양돈협회의 역할과 기능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양돈산업 전망과 대책(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박사) ▲양돈장의 맥(육일축산 김인호상무)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 협회 단신 ■

안성지부 사무실 이전

안성지부(지부장: 김인범)는 최근 사무실을 아래 장소로 이전했다.

▲주소: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봉산리 67번지

▲전화: (0334)2-3264(종전과 동일)

홍성지부 여직원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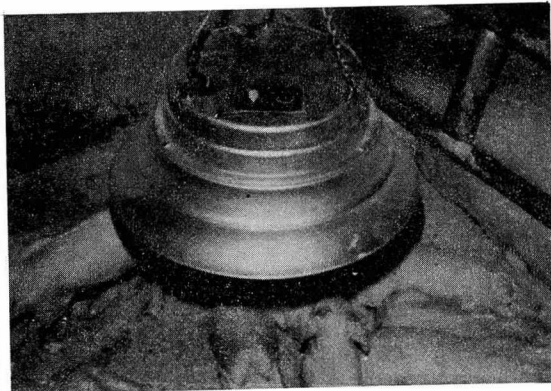
이재금양

홍성지부(지부장: 유창조)는 최근 이재금양(20세, 홍성여고 졸)을 신규채용했다.

보온등 대치품

보온기

전기를 사용하므로 산소부족현상이 없고 설치가 간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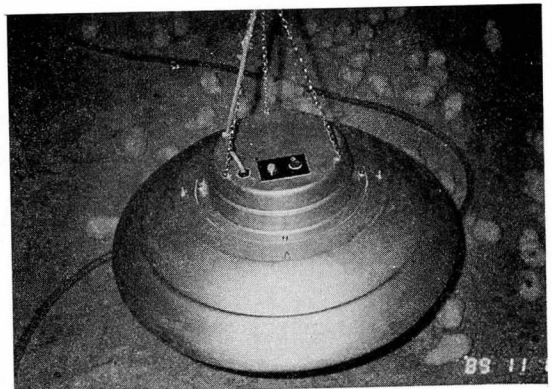
소형보온기 250, 300와트

갓난돼지, 송아지용, 직경40cm, 1.6kg

납품처: 제일 종축, 두산개발, 선진축산, 제일제당등

수명: 8년째 사용중인 농장이 있음.

(실용 및 의장특허품 이오니 복제하지 마세요)



대형보온기 500, 1000와트, 송아지,

젓 떼돼지, 병아리용, 직경58cm, 2.4kg

裕振商社

100-644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4456호

전화: (02) 888-5704

FAX: (02) 886-4144